

작은 이야기 큰 도리

즐거움은 어디에

류환 역



연변인민출판사

㉞ 작은 이야기 큰 도리



즐거움은 어디에

류환 역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崔东日
责任校对: 南今月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快乐在哪里: 朝鲜文 / 黄建华主编; 柳桓译.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10. 7

ISBN 978-7-5449-1200-6

I. ①快… II. ①黄… III. ①故事-作品集-世界-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1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0) 第120176号

快乐在哪里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0 字数: 2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1200-6 (民文)

版次: 2010年7月第1版

2010年7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6.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누구나 알고있는 큰 도리는 모두 크고 놀라운 사건속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리해되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의 중시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작은 일에서도 이런 대도리의 내포를 보아낼수 있다.

이 책속의 이야기들은 사회, 력사, 종교 등 방면에서 찾아낸것인바 편폭이 짧고 권유, 풍자와 교육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독자들은 이런 작은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될것이다.

이 책은 언어가 세련되고 내용과 형상이 생동하며 예술풍격이 다양하여 독자들의 열독과 수장에 적합하다.

차 례



들숨과 날숨 사이	1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다	4
생존을 위한 탄생	6
가장 큰 재부	8
거지의 꿈	10
물 한 주전자	13
생명은행	15
믿으면 된다	17
큰 지혜	20
부동한 대답	21
인생에는 장애가 없다	23
혜능대사의 가르침	26
가난뱅이와 부자	29

눈앞의 일을 잘 처리하라	31
생사는 하늘에	33
어디로 가는거야?	35
화를 풀다	37
좀만 더 견지해	39
자기의 길을 잘 걸으라	41
인생	42
천당과 지옥	45
추구는 도착보다 더 중요하다	47
자기를 낮추라	50
가장 진귀한것	52
리해	55
관용	57
버너드 쇼와 어린 여자애	59
아름다움과 추악함	61
높은 산	63
더 많은 손실을 본 상인	65
잔디의 깨달음	67
버릴줄을 알아야 한다	69
차플린의 지혜	70
물을 길다	72
그림속의 떡은 배를 불릴수 없다	74
마음에 축복을 담으라	77
누가 거액의 상금을 가져갔는가?	78

어부의 맹세	80
“법문”을 넘다	82
즐거움은 어디에?	84
개미와 참새	86
팁 1딸라	88
교장과 잡부	90
림종을 앞둔 사람과 갓 태어난 영아	91
제일 좋은 나이	93
수재와 선사	95
숙련되면 요령이 생긴다	97
비통을 잊은 부인	99
마음의 다리를 선물하다	101
손을 놓으라	103
인내성	104
살아갈수 있는 리유	106
선연(善緣)을 가진 돌	109
행복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111
일어서라	113
행복한 사람	115
수재와 백정	117
그는 겨우 두번 성공했다	119
발보다 더 긴 길은 없다	121
성과는 용기속에서 생겨난다	123
모든것이 다 선(禪)	125

소총명	127
정말 사랑해요?	128
안은것과 놓은것	130
류방과 진평	131
광어선사	134
그 손에 감사를 드리다	136
명예를 세우는건 자기한테 압력을 주는것	138
살아있다는것이 바로 동력이다	141
압력의 리해	143
한마디로 세계를 구하다	145
선물	147
두 어부	149
노래하는 독수리	151
코끼리와 닭	153
복권	155
의리를 지키다	157
도를 닦으려면 부귀해져야	159
국왕이 도를 깨치다	161
기다릴줄 알아야 행복을 안다	164
인내성	167
수박을 안고 사건을 수사	169
자기를 구하다	171
자비심은 가장 큰 매력	173
노력한만큼 얻는다	175

버릴줄을 알라	177
도행지의 교육방법	179
국왕과 화가	181
모수가 자기를 추천하다	183
작은것을 잃어 큰것을 도모하라	185
현실에 살다	188
무덕선사	190
선(禪)은 어디에나 있다	193
작은 일 큰 도리	195
“좋은 말”이나? 생존이나?	197
남을 돕다	199
모든걸 비운 경지	201
인생은 보존할수 없다	202
제일 좋은 한송이를 남기라	204
자존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수 있다...	206
자기를 알고 개선하라	208
신념의 힘	210
박사와 어부	212
성실한 종자	214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216
행복에 대한 체험	218
탐욕의 후과	220
인내심과 의지력	222
인생은 꿈, 생사는 연기	224

자공이 마부보다도 말할줄을 모른다	226
뜻있는자가 성공한다	228
뭉쳐진 나무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다	230
문지기	232
금으로 옷을 바꾸다	234
번뇌를 버리는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236
심리상태가 심정을 결정한다	239
멀리 생각할수록 번뇌가 많다	240
국화향기	242
방안을 채우다	244
인연	246
자기를 잊다	248
게으른 스승	250
청천의 구름	252
자리를 넘겨주다	254
물의 계발	256
멍청한체하는것도 지혜	258
독은 독으로	260
생활의 강자가 되라	262
마음속의 빙점	265
한걸음 물러서면 하늘이 넓어진다	267
심정 그대로	269
로교수의 두 제자	271
다섯번째 탄알	273

생명의 배는 가벼워야 한다	275
누가 더 위험한가?	277
사람을 쉽게 대하면 인심을 쉽게 얻는다	279
마음에 닿게 선물을 하라	281
끝없는 부귀	283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	285
백년이 꿈같다	287
범을 타고 내리지 못하다	289
낙시대와 고기	291
절벽우와 절벽아래	293
충명한 아들	296
마음속의 달빛으로 남을 비추라	298
자기를 인식하라	300
왜 사는거지?	302

들숨과 날숨 사이



어느날, 불조는 구름우에서 인간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마다 마차들이 실북 나들듯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모두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분망히 돌아치고있었는데 어떤이는 심지어 땀별창이 되어있었다. 불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봐라, 사람들이 온종일 저토록 분망하게 뛰어다니는건 무엇때문이지?”

제자들은 두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토록 분망하게 돌아치는건 ‘명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명리’란 또 어떤것이나?”

“‘명’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고 ‘리’를 가지게 되면 육체의 사치를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 ‘리’도 없는 백성들이 종일 저렇게 분망히 돌아치는건 또 무엇때문이나?”

“부처님, 백성들이 저렇게 분망하게 보내는것은 밥을 먹고 옷을 입기 위한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밥은 왜 먹고 옷은 왜 입는거지?”

불조가 계속 물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공손히 대답했다.

“부처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는건 육신을 키우고 천년의 수명을 향수하기 위한것입니다.”

불조는 맑은 눈길로 제자들을 돌아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육체의 생명이 대체 얼마나 긴지를 말해보거라.”

“부처님, 정을 가진 중생의 생명은 평균 몇십년의 길이를 가지고있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심에 차 대답했다. 그러자 불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생명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있구나.”

그러자 다른 한 제자가 정색해서 말했다.

“인류의 생명은 화초처럼 봄이면 싹이 트고 여름이면 꽃이 피며 찬란하다가 가을이면 말라들고 겨울이면 떨어져 진토로 변하지요.”

불조는 빙그레 웃으며 아래 말을 이었다.

“넌 생명의 짧고 신속함은 알고있지만 불법에 대한 료해는

여전히 표면에 머물러있구나.”

불조의 제발로 제자들은 차츰 무엇인가를 알것만 같았다. 이때 한 제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부처님, 기실 사람의 생명은 아침이슬과 별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 보기에는 이름답지만 해별이 비추기만 하면 눈 깜박할 새에 증발되어 그림자도 남지 않지요.”

불조는 웃기만 할뿐 여전히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제자들은 더욱 열렬하게 생명의 길이를 토론하였다. 이때 한 제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부처님, 제자의 소견에 의하면 생명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크게 놀랐다. 사람들은 불조만 쳐다보았다. 불조는 그제야 만족된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안해의 손을 잡는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는것과 같다.”는 설법을 두고 쟁론을 벌렸다. 모두들 재미있는 통답이라며 기분 좋게 웃어댔다.

어느날, 식탁에서 누군가 또 이 화제를 꺼냈다. 그러자 남자들은 또 재미있다는듯 웃어댔다. 한참후에야 모두들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한 여자가 웃지 않고있다는것을 발견했다. 남자들은 급히 그 여자한테 통답이니 너무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그녀는 도리어 정색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는다.”는 말의 묘리를 아는가고 물었다. 이어 그녀가 해석했다.

“왼손은 오른손의 가장 큰 믿음을 받고있으며 왼손과 오른손은 모두 자기 신체의 일부분이기에 없어서는 안되는것이예요. 다른 사람의 손이 나를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기분을 들

뜨게 할수는 있어도 지나고나면 모두 뿌리칠수 있지만 왼손만
은 뿌리치면 잔폐가 되는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남자들은 옳다고 맞장구를 치며 녀인의 리해가 심
각하다고 칭찬했다.

남자들속에서 담이 큰 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안해를 시험
해보았다. 과연 안해의 리해도 식탁에 함께 앉았던 그 녀인의
리해와 같았다.

생존을 위한 탄성



캐나다의 퀘벡에는 남북으로 향한 산골짜기가 있다. 산골짜기는 남다른 특징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 만한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쪽 비탈에는 소나무, 측백나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지만 동쪽 비탈에는 설송만 있는것이였다.

한쌍의 부부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그것은 1993년 겨울이였다. 이때 이 부부의 혼인은 한창 파열의 변두리에 처해있었다. 이전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부부는 한차례 낭만적인 여행을 준비했다. 그들이 이 산골짜기에 왔을 때 큰 눈이 내렸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하늘에서 훑날리는 큰 눈을 바라보았다. 이때 그들은 이상한 바람방향을 발견하게 되였다. 동쪽 비탈의 눈은 언제나 서쪽 비탈의 눈보다 크고도 밀집했던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송우에는 두터운 눈이 쌓이